

# 남성 화장 특성

김주에\* · 이연희

경상대학교 의류학전공 · 진주국제대학교 미용패션학부

지금까지 화장에 대한 연구는 여성의 화장행동 특성이나 화장 문화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성인남녀들의 외모장식 경향들에 근거할 때, 화장은 이제 더 이상 여성들의 전유물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남성화장 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각 화장품 브랜드들의 신상품 출시와 이에 따른 판촉활동들을 통하여 잘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 화장 전반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며, 몇몇 선행연구 또한 남성 화장품 마케팅이나 광고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역사 속에 나타난 남성 화장의 현상을 통하여 남성화장의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남성 화장에 대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및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부르봉왕조 남자 귀족이나 평안귀족 등은 화려한 화장을 하였고, 고대의 호족과 수장도 똑같이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었다. 전통적인 민족 화장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등에서도 여성보다 화려한 화장과 복장의 남성 외모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남성의 화장한 모습과 호화로운 복장이 사라지면서 남성패션의 선택 폭이 좁아졌다. 사회의 설계 기준이 노동 남성에 두어지고 여성은 노동남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것이 근대형 성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남성은 노동을 정신적 물리적으로 방해받지 않기 위해, 꾸미는 것을 금지하고 금욕적인 패션을 취하였던 반면, 여성은 호화로운 화장과 의복으로 남편의 지위를 과시함으로써 패션은 여성에 한정되었다. 1960년대에 들어 락(rock)그룹이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하여 남성 화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 경우의 메이크업은 기성의 가치관이나 경직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였으나 점차 외관의 아름다움을 중시하게 되면서 비주얼계로 불려졌다.

ROLLY와 IZAM, GACKT와 같이 남성화장에 의한 아름다운 표현법은 종래 여성 표현법과 상통하였고, 1990년대 말엽에 비주얼계 밴드라는 단어가 유행하였다. 이후로는 스포츠선수의 남성 화장이 두드러졌다. 베컴 선수의 커트나 호나우도 선수의 깎고 남은 것을 살린 독특한 헤어스타일, 토타 선수의 붉은 닭 벼슬머리 등이 눈에 띄었다.

여태까지 스포츠 선수는 외관을 꾸미는 것은 금지되고, 스포츠에만 몰입해야 했으나 최근에 이미지트레이닝과 더불어 스포츠 선수의 외관은 일류선수로서의 자각과 자신감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변화되어 선수들은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전에는 영

\* Corresponding author: jakim@nongae.gsnu.ac.kr

화배우의 머리형과 복장이 유행의 근원이었으나 현재는 스포츠 선수가 영웅으로 인식되어, 스포츠선수의 머리형과 복장이 유행의 근원으로 되었다. 1998년의 나가노올림픽 시기에 젊은 남성 사이에서 눈썹형을 정돈하는 것이 급속하게 보급되었다. 또 남성 잡지에서 화장을 취급한 것이 증가되고, 뷰티 전문지도 등장하게 되어 남성 화장의 보편화를 꾀하였다.

남성의 미적 표현의 또 다른 방법으로서, 멋 내기를 좋아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것에 둘러싸여져 있고 싶은 남성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남성의 행동 범위에 강한 불만을 가지며, 사회적 일탈이나 취미활동을 시도하기도 한다. 즉 여장(女裝) 클럽에서 화장과 의장으로서 여장을 즐기거나 드래그 퀸의 표현을 하는 남성도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통적인 민족 화장이 전승된 지역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오히려 화려한 화장행동을 하였다. 고대의 호족과 수장 외에 근세 프랑스의 남자 귀족도 화려한 화장을 하였으므로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남성화장은 일반적이며, 이들 역시 때로는 여성보다 더 화려하고 눈에 띄는 화장행동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남성들은 패션에 대한 선택의 폭이 좁아짐으로써, 호화로운 복장과 더불어 화장 또한 사라져갔다. 남성 화장이 다시 두드러진 것은 1960년대부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쳤던 하위문화의 하나인 락 뮤지션을 통해서이며, 이들의 화려한 메이크업은 처음에 기성 가치관과 경직된 사회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시작되었으나, 점차 외관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행동양식으로 변화되었다. 이전에는 영화배우의 머리형과 복장이 유행의 근원이었으나 현재는 스포츠선수가 영웅으로 인식되어지면서 그들에 취하는 남성화장이 유행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오늘날 의복, 화장, 헤어스타일 등에 이르기까지 남성들의 두드러진 패션행동의 이면에는 사회 속에서 남녀 본연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부상되고, 근대의 성 역할에 따른 외모장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자기표현이 허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환경변화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비록 신체의 미적 표현이나 선택의 폭은 좁지만, 일탈이나 특수한 취미로서 여장이나 드래그 퀸을 통해 개인의 셀프이미지를 화장과 의상으로 풍부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남성의 미적 표현을 통해 인간은 다채로운 자기표현을 인정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